

# 오늘의 대학과 미래의 도전\*

Fabio Roversi-Monaco

볼로냐 대학교 총장



## 〈요약〉

미래의 대학 발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1988년 9월 18일 볼로냐에서 대학 공동체가 받아들였던 “세계 대학 권리장전”에 포함된 원칙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 권리장전에서 교수와 대학 사회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정의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권리들이 곧 이 명문화된 이유는 20세기 들어 너무나 자주 그러한 권리가 침해되었기 때문이다. 대학은 어떠한 정치적·경제적 권력에 대항해서도 그들의 도덕적·과학적 독립을 견지해야만 한다. 비판적으로 지식을 전수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동시에 자유로운 의견 교환의 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은 과학적 지식의 발전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곧 이질적인 문화간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위한 노력, 그리고 지식의 전달자(교수)와 수용자(학생) 간의 끈끈한 연대를 통한 관용과 의사 소통을 위한 노력을 의미한

다. 이러한 진리가 자명하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각국의 대학들이 이러한 원칙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대학이 몇 번이나 그들의 자율성, 아니 자유 그 자체까지 부정하는 체제의 도구가 되었는가?

“세계 대학 권리장전”은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천명하고 있다. :

인류의 미래는 문화·과학·기술의 발전에 달려 있으며, 이는 대학이 진정한 문화, 지식, 연구의 중심이 됨으로써 이를 수 있다. 젊은 세대에 지식을 전수하는 대학의 사명을 고려할 때 대학은 사회 전체에 봉사해야 하며, 사회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성인 교육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요구된다. 대학은 미래의 세대에게 자연 환경과 생명의 존엄성을 인식하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자율성,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현대 사회의 요구에 대한 개방성, 연구와 교육의 불가분성, 대학의 주도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점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새롭게

\* 이 글은 지난 9월, 성균관대학교 개교 600주년 기념 ‘세계 총장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록한 것입니다.

정의되고 보호될 필요가 있다. 초기의 대학들은 11세기 말 유럽에서 정치적·종교적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연구와 교육의 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져 생겨났다. 대학은 다시금 사회의 비판적 양심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대학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발전을 위한 비판적 인식을 유지함은 물론, 자신의 역할 역시 도마 위에 올려야만 한다. 대학은 과학과 인문학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전체적인 문화를 발전시킬 임무가 있다. 우리는 어려운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식량의 생산, 건강의 유지, 지구의 보존 등과 같은 문제들은 과학만으로 해결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학을 통하지 않고 해결될 수도 없다. 연구는 고도로 발전한 산업 사회에서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결정적인 요소이다. 연구가 지식의 영역을 개척하며, 학생들을 의문과 불확실성 투성이인 과학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연구야말로 고등교육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함을 알 수 있다.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이 협력과 경쟁을 해나가는 체제를 통해 이념이나 정당 정치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 국가는 교육과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사립대학들의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다.

외부의 세력에 개방하고 산업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지는 것은 대학의 밝은 미래를 위한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대학권리장전에 포함된 많은 원칙들 중 일부만이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대학들이 설립 목적을 재인식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음을 인정해야 하겠다. 대학의 임무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정면에 새겨진 "살아있는 영혼에게"라는 글귀에 가장 잘 나타난다. 이 문구가 히틀러의 출현과 함께 "독일의 영혼에게"로 바뀌었다가 다시 복원된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저는 미래의 대학 발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1988년 9월 18일 볼로냐에서 대학 공동체가 자발적이고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던 "세계 대학 권리장전"에 포함된 원칙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역

사에 정통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원칙들이 세계 주요국 대학들의 많은 차이점들을 고려하면서 최초로 정의되고 씌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이 세계 대학들의 공통 유산으로 기꺼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은, 보편적으로 따라야 하는 일정한 원칙과 사상들이 명확히 정의되지는 않았을지언정 뿌리 깊이 존재했으며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저는 권리장전에서 교수와 대학 사회의 양심에 뿌리 박힌 기본적인 권리들을 정의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이 명문화된 이유는 20세기에 들어 너무나 자주 그러한 권리가 침해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학이 속하는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대학은 어떠한 정치적·경제적 권력에 대항하여 그들의 도덕적·과학적 독립을 견지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연구와 교육의 통합을 이루면서 비판적으로 지식을 전수하는 과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학은 자유로운 의견 교환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대학은 과학적 지식의 발전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곧 이질적인 문화간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위한 노력, 그리고 지식의 전달자(교수)와 지식의 수용자(학생) 간의 끈끈한 연대를 통한 관용과 의사 소통을 위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이러한 진리가 자명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각국의 대학들이 이러한 원칙을 얼마나 충실히 지켜왔습니까? 대학이 몇 번이나 그들의 자율성, 아니 자유 그 자체까지 부정하는 체제의 도구가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대학이 원칙을 고수하는 과정에서 공격당하고 상처를 입는 상황에서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설정할 때 이것의 중요성은 배가됩니다.

대학의 자율성,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현대 사회의 요구에 대한 개방성, 연구와 교육의 불가분성, 대학의 주도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점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새롭게 정의되고 보호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관은 과거에 뿌리 박혀 있으며, 제가 볼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대학의 역할을 보다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의 본래 의미가 총체적인 세계관을 형성하기 위한 시도였다면, 현재의 대학은 노벨상을 수상한 Prigogine이 지적했듯이 “단편적인 전문적 접근의 모자이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다양하고도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대학이 현실과 유리된 상아탑이라 일컬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학은 Bernard Crick이 지적했듯이 혼잡하고 시끄러운 백화점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불가항력처럼 보이는 상황의 전개를 이해하기 위해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입니다. 초기의 대학들은 11세기 말 유럽에서 정치적·종교적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연구와 교육의 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져 생겨났습니다.

대학의 필수불가결한 토대는 과학의 자유와 그러한 자유의 교육과정과의 결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적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여 설립된 초창기 대학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이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또 해야 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과거의 어느 시기에는 대학이 근본을 잊

고 학문적 자만심의 인질이 되어 사회로부터 고립된 적도 있었을지 모르나, 그런 날들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과학의 중립성과 객관성의 자치는 이제 신화가 되었습니다. 대학은 세상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당대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시대적인 요청이 대학으로 하여금 급속한 기술 발전과 대중 문화 문명의 요구를 해석하고 의사 소통에 나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논점이 발생하는 데, 즉 사회적 요구를 이해하고 발전을 선도하는 과정에서의 대학의 위상입니다. 대학은 사회의 비판적 양심의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발전과정과 유리된 대학의 모델을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Edgard Morin이 말했듯이, 대학의 주된 임무는 과거를 보존하고 현재와 관계를 가지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중세 이래로 대학은 문화를 보존하고 공식화하며 재생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대학은 습득한 지식을 유지,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비판적 인식 역시 그렇게 다루어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개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대학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발전을 위한 비판적 인식을 유지함은 물론, 자신의 역할 역시 도마 위에 올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은 동시대 세계의 위기에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학의 존재 이유를 사회가 결정하는 단계를 벗어나 인류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을 파헤치는 전통적인 연구에 몰두하는 단계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보다

시야를 넓혀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날의 대학은 다양한 분야에서 비판적 접근을 해야 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재정의함에 있어서도 엄격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대학은 과학과 인문학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전체적인 문화를 발전시킬 임무가 있습니다.

“나는 항상 서양 과학의 특이한 운명에 매료된다.”라고 Prigogine이 말하듯이, 서양 문명은 인류의 창조성이 이룩한 위업인 동시에 오늘날 우리의 문화가 이처럼 분열하게 된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모든 규칙, 모든 증명, 모든 전통적 가치에 도전할 수 있는 지식이 초래하는 혼란은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러한 지식 역시 급격한 변화에 시달려 왔습니다.

오늘날 심하게 분열된 인간 지식의 형태에 대해 불만족이 다소 존재합니다. 따라서 대학은 과학과 인문학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전체적인 문화를 발전시킬 임무가 있습니다. 과학이 자연에 관한 배타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신자연주의 혹은 신인문주의와 가까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현대 과학의 기원으로 인도합니다.

분야의 다양화, 그리고 기하급수적인 지식의 성장과 전공의 증가는 동시에 분야들간에 뛰어넘기 어려운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학제적 연구에 대한 요청은 그러므로 타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학제적 접근은 대학 내에서 심화되어 가는 분열을 극복하는데는 역부족이지만 하나의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이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시장의 변화, 경제적 환경의 변화, 그리고 일시적인 유행에 너무 민감하

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면 생명력의 신호가 아니라 본질의 상실과 노화, 심지어는 뿌리를 잃는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식량의 생산, 건강의 유지, 지구의 보존 등과 같은 문제들은 과학만으로 해결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학을 통하지 않고 해결될 수도 없습니다.

Allen Bloom은 그의 저서에서 “고등교육은 민주주의를 소홀히 하고 학생들의 영혼을 메마르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학이란 현대 과학의 측면에서 개인의 존엄성을 주장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학은 서구 문화의 위기를 맞아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미 언급한 원칙들을 존중하면서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며 제도로서의 역할을 완수해야 합니다.

유럽에서는 이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대학생 수의 증가, 남녀의 동등한 참여, 파트타임 학생과 평생교육과정 학생의 상당한 증가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대학이 전통적으로 수행해 온 기능을 새로운 각도에서 보게 합니다. 그것들은 생산활동과 공공행정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지역사회와 밀착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강조합니다.

연구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미국, 일본, 한국, 유럽 연합의 회원국들과 같이 고도로 발전한 산업 사회에서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산업 부문과 정부의 재정적 기여를 통해 상업적 잠재력을 지닌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대학 캠퍼스에 다양한 연구 기관이 설

립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응용 위주의 단기적 연구에 치중하여 기초 연구가 홀대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과학자들이 연구에 관련된 결정권을 잃어 그들의 지적 자유를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것 역시 걱정거리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회가 그 결과를 이용하지 않거나 대학의 연구진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는다면 현재 수행중인 연구와 그 비용이 합리화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연구가 교육의 목표와 그 한계를 설정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연구야말로 고등교육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연구는 지식의 영역을 개척하며, 학생들을 의문과 불확실성 투성이인 과학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교육과 연구가 명확히 정의된 과학과 그 실제적 적용에 국한되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제공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고등교육은 독특한 분석 방법을 소개합니다. 사실 그 역할과 높아지는 기대로 인해 고등교육은 어떤 형태로든 자체 평가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다른 기구가 그러한 평가에 나설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학의 조직에 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근의 몇몇 사건은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대학의 자율성이 신장되었음을 보여주는 반면, 그 반대를 시사하는 사건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대비하고 닥쳐올 것들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입니다.

유럽 학장회의의 회장인 Joseph Bricall이 지적한 네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 1) 유럽 대학들의 예산 조달 체계의 변화 필요성

일반적으로 경비의 2/3 이상이 정부의 지

원으로 충당됩니다. 경제 전망이나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떻게 변하든지 풍족한 공적 보조금의 시대는 끝났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행정부는 대학에 주어진 기금의 유용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대학에 따라 이로 인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책임상 새로운 평가 방법과 재정적 조적을 도입하고 교원의 업무 관리능력에 관한 새로운 기준이 채택될 필요가 있습니다.

#### 2) 서비스 부문 기업에서 사용되는 관리기법의 부분적인 채택

결과적으로 대학들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원한다면 서비스 부문 기업에서 사용되는 관리기법을 부분적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학의 구조, 조직, 절차, 교원과 직원간 업무 분장 등에 변화를 초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 3) 외부의 요구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

대학 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사용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역동적인 사회의 요구에 호응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따라서 모든 기관들은 대학을 다양화하고 인적 자원의 면밀한 계획 등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능력을 당국에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 4) 자금자족의 지향

이 거대한 변화는 단순히 교원과 학생들의 교환을 넘어서는 대학간 협력의 증가를 시사합니다. 대학간 분업을 가능케 하는 연결망의 형성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유럽 교육지역 내에서 이러한 협력체를 구성할 호기를 맞았습니다.

유럽에서 이탈리아의 대학들은 고유의 특

성과 아울러 정치 체제와 노동 조합에 기인하는 다소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 인구의 과잉 문제는 거의 해결되었습니다. 출산률의 현저한 하락은 10년 안에 대학 입학 적령기의 인구를 거의 40%나 감소시킬 것입니다. 동시에 입학 자격을 지닌 젊은이들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리라는 징후도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수의 감소는 시간 문제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큰 대학을 소형화하고 존재 가치가 없는 대학의 폐쇄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동시에 대학 교육이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가 아니라 일종의 투자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에서는 대학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학생들이 지불하는 비용은 상징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반하며, 대학간의 경쟁과 혁신을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교수와 연구원들을 공무원에 준하는 조건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경쟁을 거쳐 임명되면 정년이 보장됩니다. 보수는 성과에 연동되어 있지 않으며, 교원은 해고될 수 없고 임무 수행 실적은 평가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수들은 의무를 게을리하기 쉽고 학생들은 자퇴하든지 졸업하는 데 많은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 제도가 하루 아침에 폐지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몇 가지의 새로운 요소가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등록금 수입에 기초한 재정적 자치의 증대, 학문적 의무와 성취도의 향상, 종신고용제의 폐지, 사회와의 유대 강화 등이 그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것입니다. 이

탈리아에서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산업과의 연계를 거부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충분하지는 않지만 상황이 어느 정도 변했습니다. 여타 사회 부문 및 경제적 세력과 협력의 개방적이고 역동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학의 자유가 신장되고 관료의 영향력이 감소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랫동안 우리의 발목을 잡아 왔던 관료들로부터 벗어나 국립대학의 자유와 독립성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편일지도 모릅니다.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이 협력과 경쟁을 해나가는 체제를 통해 이념이나 정당 정치의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교육과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사립대학들의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개별 대학들이 자신의 규모와 재원을 감안하여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법령을 채택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스스로 예산을 확보하고 미래를 결정하는 기회는 더 큰 책임과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유발할 것입니다. 외부의 세력에 개방하고 산업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지는 것은 이탈리아 대학들의 미래에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나아갈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대학은 기업의 발전에 호의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외부에서 생산된 지식을 흡수하며 전달하는 기능을 지녔기에, 교수와 학생들이 기업을 설립하여 대학이 직간접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산업에 혁신과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대학 연구에 관한 심각한 문제점 중 하나는 비용과 편익의 분석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다. 이것은 지원의 축소와 대학의 역할이 과소평가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다른 극단에서는 우위를 지닌 분야의 격렬한 방어, 교원은 외부 평가로부터 자유롭다는 인식, 혹은 교직원의 자의적인 임용 등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무분별한 자원의 배분을 거부하고 공공부문에 할당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 여부에 관심을 보이는 사회와의 충돌이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또 다른 위험은, 대학에의 자금 지원이 점차 끊어지고 즉각적인 효용이 보장되는 연구에만 자원이 할당되어 순수 연구가 저해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탈리아 대학의 오랜 관행과 학문의 자유에 안주해온 기득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법의 지팡이로 해결할 수 없는 심대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문의 자유는 대학에서 수행되는 연구의 기본 요소이자 사회의 진보에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는 이러한 학문의 자유를 방어하는 동시에 특혜의 남용을 근절해야 합니다. 대학권리장전에 포함된 많은 원칙들 중 일부만이, 그것도 불만족스럽게 적용되어졌습니다. 특히, 혁신의 필요성은 아직 사고 방식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사회와의 관계 역시 여전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많은 대학들이 설립 목적을 재인식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음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수세기에 걸쳐 행해진 대학의 임무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문화는 일상 생활에 기여해야 하지만 그 안에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문화에는 사회를 관통하는 사회적 임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정면에 새겨진 “살아있는 영혼에게”라는 글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구가 히틀러의 출현과 함께 “독일의 영혼에게”로 바뀌었다가 다시 복원된 채 남아있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